‘포교 콘텐츠’ 모바일로 집대성된다

포교원 ‘붓다로살자’ 앱 개발 착수…8월 말 공개

조계종 포교원이 신행혁신운동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모바일 포교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시대에 맞춰 모바일로 수행을 점검하고, 영상법문과 설법 자료 등을 열람하는 등 뉴미디어 포교의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5월 15일 아토즈소프트를 ‘붓다로살자’ 앱 개발 용역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붓다로살자’(가칭)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용 2가지 버전으로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개발된다.

‘붓다로살자’ 앱에는 먼저 신행혁신운동에 대한 소개와 서원 메모를 포함하는 ‘붓다로살자 서원’ 기능이 담긴다. ‘붓다로살자 서원’에는 붓다로살자 공통서원문과 함께 자신만의 서원을 남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포교원이 보급을 시작한 일일수행점검표의 모바일 버전인 ‘붓다의 수행’ 기능도 들어간다. ‘붓다의 수행’은 불자들이 일일수행 실천을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삼보예경, 청규읽기, 수행하기, 이웃을 위한 기도하기, 발원문 읽기, 보시하기, 사홍서원, 수행일기 쓰기 등으로 구성된다.

수행기간도 50일에서 1000일 등 다양하게 설정가능하며, 기존 포교원이 개발한 연령별 마음거울108앱과 연동한 참선, 명상, 독경, 염불 등 지원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50대 불자가 염불수행을 선택하면 중년마음거울 108앱이 연동돼 이 앱에 담긴 염불 정근 음원과 배경화면이 함께 표시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푸쉬기능을 설정하면 수행시간에 맞춰 진동 등으로 수행일정을 알려준다.

이 밖에 포교원 및 포교 · 신도단체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소식’ 기능도 있다.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해 포교원 산하 포교 · 신도단체들의 동향과 소식이 공유된다. 또 신행혁신운동 관련 다양한 행사와 활동도 공지된다.

1일 수행점검 기능 탑재
그래픽으로 달성도 표시
연령별 마음거울앱 연동
의례 음원 · 경전자료 제공
포교 · 신도단체 소식 공유
“지속 개발, 뉴미디어 포교”

눈길을 끄는 것은 ‘자료실’ 기능이다. 자료실에는 법문 동영상과 법화와 설법 자료, 경전 자료, 반야심경과 칠정례 등 우리말 의례 음원 및 동영상 등이 공유된다. 일선 사찰에서 붓다로살자 앱을 통해 쉽게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청암사 승가대학서 태블릿을 활용해 교육 받는 학인 스님의 모습. 포교원은 모바일 시대에 맞춰 스님과 불자들이 보다 쉽게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붓다로살자 앱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은 당초 이번 앱에 M(모바일) 라이브러리 기능을 담아 그동안 포교원이 펴낸 다양한 포교 연구자료를 공유하려 했지만, 용량과 제작일정 등의 문제로 법회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공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료는 PC용 화면을 별도 구성하고 PC를 연계해 열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설정’ 기능에서는 설정기간 동안 수행에 따른 변화와 달성도를 연꽃이 피어나거나 나무가 점점 자라는 등 그래픽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봉 포교원 포교종책팀장은 “포교원은 최근 통합종무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종단의 종무행정에 부합하도록 포교 또한 뉴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모색해왔다. ‘붓다로살자’ 앱 개발을 통해 뉴미디어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며 “시대에 맞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사찰현장과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쉽게 불교신행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대표IT 개발 업체인 다나의 최대종 대표는 “외부의 모바일 전환과 별개로 불교계에는 고연령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활용 등에 미숙한 환경적 특색이 있다”며 “사찰과 스님 외에 일반 신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찰의 스마트폰 교육 등을 병행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이번 앱 개발에 앞서 5월 12일 각종 포교자료를 담은 USB를 130여 전법중심도량에 배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8주 과정 부탄 행복명상아카데미 열린다

한국부탄우호협회 등 공동, 5월 24일부터

전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 부탄의 불교명상과정을 국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윌리엄 리)와 티벳박물관(관장 현장), (사)자비명상(대표 마가)은 5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시청역 대한성공회 성당 프란시스코홀서 ‘부탄행복명상 입문지도사’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부탄정부가 공식 인증한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부탄이 아닌 외국서는 최초다. 특히 대한성공회와 성가수녀원이 후원할 만큼 불자뿐만 아니라 범종교적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탄행복명상 입문지도사 과정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행복’의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행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는 단계다. △행복왕국 부탄 개요 △부탄의 정신문화 △부탄의 행복명상-아상을 자르는 명상 △부탄의 행복명상-마음바꾸기 명상 △국민을 행복하게 하라 △부탄문화체험-싱잉볼 명상 △부탄 고승초청 수행지도 특강 △부탄행복명상 템플스테이(보성 대원사) 등으로 강의가 구성됐으며, 8월 18~25일 부탄현지 행복명상워크숍 및 부탄성지순례가 진행된다.

강사진은 마가 스님과 현장 스님, 윌리엄 리 한국부탄우호협회장을 비롯해 쿤상라돈(부탄학연구소), 천시아(싱잉볼 명상가), 남개왕축(국가행복위원회), 남닥린포체(부탄고승) 등이며, 주제별로 나눠 강의한다. 수강료는 1~8주차 강의 80만원, 부탄현지 워크숍 289만원이다. 모든 과정을 마친 수료자에게는 부탄정부에서 인증하는 ‘부탄행복명상 입문지도사’ 수료증이 주어진다.

한국부탄우호협회는 이번 입문과정을 시작으로 중급 · 심화과정을 연달아 운영해 행복명상전문가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02)518-5012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설악산 신흥사 역사 ‘한눈에’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가 5월 10일 경내에 유물전시관을 개관했다. 전시관에는 신흥사 금고(강원도유형문화재 제163호)를 비롯해 신흥사 동종(도유형문화재 제164호), 안양암 아미타회상도(도유형문화재 제165호), 신흥사 칠성도(도문화재자료 제151호), 신흥사 청동시루(도문화재자료 제169호) 등 약 1천여점 이상의 성보가 전시돼 있다. 또한 창건 이후의 신흥사 사력과 이 곳에 주석했던 역대 고승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김주일 기자

4.16희망순례단, 팽목항 향한 809km 여정 출발

7월 6일 팽목항 당도 예정, 동참자 1004명 모집

인천 연안부두에서 팽목항까지 세월호 뱃길을 따라 걷는 ‘4.16순례길’이 첫 발을 내딛었다.

‘4.16희망순례단’은 5월 15일 인천 연안부두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서 출발했다. 순례단은 7월 6일까지 세월호 뱃길을 따라 총 809km 순례길을 걸어 팽목항에 당도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출발식은 ‘4.16순례길’ 조성 취지 소개, 각 종단 지도자들의 격려사와 관련 기관단체의 연대사, 순조로운 순례를 기원하는 작은 공연, 선언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4.16 순례를 떠나며’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세월호의 아픔을 마음에 새겨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4.16순례길의 출발식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순례길 조성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겐 큰 위안이 되고 아픈 상처를 생명 존중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겐 새로운 꿈이 되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특히 이번 순례단은 별도의 전담인력 없이 순수하게 전국에서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길에 앞장서주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따가운 햇살아래 고된 길이 이어지겠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순례길이 되어 우리 사회에 생명의 환한 길이 넓게 열리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4.16희망순례단’은 5월 15일 인천 연안부두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서 출발했다.

이날 출발식 후 순례단은 연안부두여객터미널광장~롯데아울렛 팩토리~학익에코테마파크~아암도해안공원~외암도사거리 등 총 14km를 행진했다. 순례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약 53일간 22개 지차제, 총 809.16km를 걷는다. 순례 동안에는 세월호 304인 이팝나무동산이 있는 정읍 황토현전적지를 방문하는 한편, 목포신항에서 기도모임을 여는 등 곳곳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를 마련한다.

한편 순례단은 이번 순례 동안 동참자 1004명을 지속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하루 이상 함께 걷고 3만원의 후원금을 내야한다. 신청은 ‘세월호 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 홈페이지서 가능하다. 현재 생명평화결사, 세월호지리산천일기도, 지리산종교연대, 한국작가회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붓다로살자, 예술살기 등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29회 한국불교미술대전 공모

9월 5~7일 나무갤러리서 접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제29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을 발표하고 9월 5~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입구에서 작품접수를 받는다.

특히 이번 불교미술대전은 상의 훈격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상작 상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청년불자들의 작가활동을 유도하고자 대학생 이하 작가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특별상을 신설했다.

이밖에 △최우수상(2명),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3명),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장려상(6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특별상(2명), 상장 100만원 △특선 및 입선(00명) 상장 등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30일 열리며 이날부터 12월 1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수상작들이 전시된다.

공모 요강 및 응모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02)2011-1770 박아름 기자

불기2561 단기4350년
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성불하십시요

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

옴은 가난과 윤회의 고난에서 벗어나 안정의 상태를 가진다. 마니는 보석을 의미한다. 반메는 연꽃 지혜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옴마니반메훔은 지혜와 방편이다. 연꽃 속의 보석이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 이 시계를 착용한 자는 모든 팔난이 소멸될 것이다.

부처님의 의미는, 첫째는 지대한 관심과 둘째는 확신과 의욕이며 셋째는 성취의 깨달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부처님과 합일되면 자신과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옴 마니 반메 훔은 하늘과 인간 축생 아귀 모든 지옥문을 닫는다.

기(氣) 심령연구가 정음스님 www.kgf21.kr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불자님들께 성불하시라고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시계 점안식

- IPG 24K공법으로 완성된 케이스
- 세미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 최상의 금도금 24각 커팅 베젤 스타일
- 최고급 사각보석 12개 문자판에 식입
- 최고급 JAPAN 무브먼트
- 3기압방수, 3ATM
- 최고급 보석 용두
- 문자판 내부에 부처님상 양각화
- 스테인레스 스틸 메탈밴드

낱개당 판매가 138,000원
남녀세트 판매가 238,000원
(축원기도 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문화 포교회
등록번호 : 017-05-01

추천: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문화관광부 법인설립허가 제 6 호

만사형통 기원을 바란다면 기(氣) 에너지가 넘쳐야 만사형통이 찾아옵니다!

약력
- 대한불교정음사원 원장
- 불교조계종관음사주지
- 심령과학 영상확회 회장
- 한국 장례문화 연구원장
-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장
- 대체의학기(氣)연구소장 www.kgf21.kr
- 대한민국 37개 불교종단으로부터 심령학자 인증과 불교대체의학 연구상 수상

방송출연
- MBC 일요스페셜 ‘기 신비에서 과학으로’
- KBS 미스터리 추적 ‘영의 수수께끼 저주’
- KBS 미스터리 추적 ‘기 염력’
- KBS 놀라운 TV ‘기 염력’
- SBS 토요미스터리 ‘혼령이 있는곳’
- HBS 영혼과 대화 (귀신은 있다)
- HBS 숨어있는 의술명인 (난치병을 고친다)



정음 큰스님
가정과 개인 상담전화
(010-4142-0924)

호신불 달마 시계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번창을 원하시는 분
- 가정에 평안을 발원하시는 분
- 육신에 병고가 찾아와 기운이 없으신 분
- 마음이 어지러워 꿈자리가 뒤숭숭 하신 분
- 수험생 자녀가 계신 분

상담문의 1588-4164
입금계좌 (농협) 351-0949-7000-63 예금주: 불교조계종관음사